

고령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고령층(55~79세) 취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 이후까지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생활비’와 ‘일하는 즐거움’이 주된 이유였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036만2000명으로, 35만2000명 늘었다.

이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상 고령자 지원 기준이 되는 최저 연령을 고려해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했다.

10년새 1.5배 증가...근속도 17년 7개월로 늘어

절반 이상 ‘생활비’ 이유...월평균 연금 88만원

취업자는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 5000명이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 배로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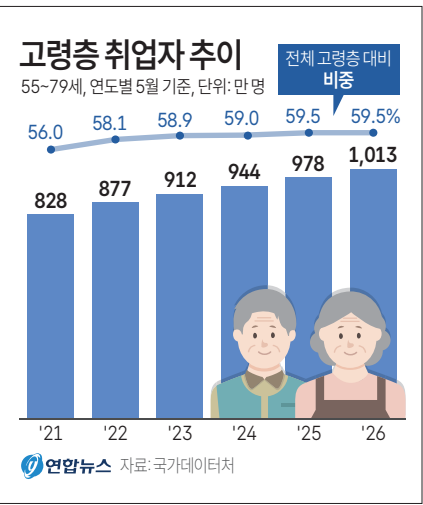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1178만2000명으로, 1년 사이에 36만1000명 증가했다.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은 69.2%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보다는 0.2%p 하락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희망 은퇴 시점)은 73.6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53.4%)이 가장 컸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p 줄었고 2019년(60.2%)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일하는 즐거움’(36.7%)은 0.6%



p 올랐다. 2021년(33.1%)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선 지급도 근무하는 비중은 30.5%로, 작년보다 0.4%p 상승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선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년 8.6개월, 여자는 13년 7.1개월이었다.

근속기간별로 구성비를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사직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작년보다 0.1세 높아졌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24.9%)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22.1%), ‘가족을 돌보기 위해’(15.2%) 순으로 높았다.

연금 수령액은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지난해보다 1.0%p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54만원)에는 못 미쳤다.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37.7%)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33.2%), 150만원 이상(15.9%)이 뒤를 이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이 '2025년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한 문장 캠프'가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지원 ‘한 문장 캠프’, 방송대상 수상

지역교양TV 부문 작품상

장흥 뽀빠용Zip 배경 다큐

체험형 융복합콘텐츠 성과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5년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한 문장 캠프’가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지역 교양TV 부문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방송대상은 전국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공익성과 작품성, 방송문화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국내 대표 방송 시상식이다.

‘한 문장 캠프’는 문학을 매개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마주하며 각자의 ‘한 문장’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 다큐멘터리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그의 문학적 뿌리이자 아버지 지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의 복합 문화공간 ‘뽀빠용Zip(옛 장흥교도소)’을 배경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작품은 진흥원이 추진하는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물이다.

이 사업은 지역 공공문화공간을 활용한 한 체험형·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문화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흥군은 사업 수행기관인 목포MBC와 협력해 복합문화공간 뽀빠용Zip에 ‘한 문장 캠프’를 비롯한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를 구축·운영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문화자원과 방송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로, 전남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전남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시간 1특화 콘텐츠’ 조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0개 시·군과 함께 53개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식중독균, 계절보다 위생관리가 더 밀집”

광주보건환경연, 식품안전 연구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10년간 축적한 식품안전 감시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최근 식품안전분야 국제학술지 ‘식품매개 병원체 및 질병(Foodborne Pathogens and Disease)’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광주지역 유통 식품원재료 내 식중독균의 구조적 복합오염 패턴 분석’(제1저자 박덕웅)이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미생물과에서 집필했다.

이 논문은 원재료 식품의 식중독균 복합 오염을 분석해 식품별 위해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식품 4653건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여러 식중독균이 동시에 검출되는 복합오염 검출 비율이 축산물 16.0%,

농산물 15.8%, 수산물 5.6%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품 종류별로 함께 검출되는 식중독균 조합이 달랐으며, 식중독균 복합오염은 계절보다 유통·가공·취급 과정의 위생관리 수준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중 상시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여러 병원균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위해(Multi-hazard) 감시체계 구축 기반을 제시, 향후 식품 위해도 평가와 식중독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울타’·시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

전남의 보물섬



초대석



“여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영매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장의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카자흐 사로잡은 K-쌀가공식품...수출 확대 기대

aT, K-FEST서 떡볶이·김치볶음밥 홍보

한국산 쌀가공식품이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떡볶이와 김치볶음밥 등 친숙한 K-푸드를 앞세워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식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대규모 한류 행사 ‘K-FEST’에서 한국산 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과 재외동포청, 아스타나 고려인협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행사 기간 3000여명이 방문했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중앙아시아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 중인 K-쌀가공식품을 집중 소개했다. 기존 라면과 과자류 중심의 K-푸드 인기를 넘어 떡볶이, 냉동 김치볶음밥, 쌀음료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 기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홍보관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떡볶이와 김치볶음밥을 맛보고 조리 과정과 제품 특징을 경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건강식품과 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쌀 음료도 함께 소개했다. 매운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소비층 공략에 나섰다.

현장을 찾은 현지 방문객 아르잔씨는



“한식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김치볶음밥을 아예 행사에서 직접 먹어본 것은 처음이다”며 “맛도 좋고 조리도 간편해 앞으로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한국 식품 수출시장으로 꼽히며,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aT는 현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체험형 마케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천 기자 pose007@